

# 영화 한 편 10초에 다운... 갤럭시 두뇌 '엑시노스 9810' 양산



독자개발 3세대 CPU 코어 탑재  
최고수준의 4세대 LTE모뎀도  
3차원 스캐닝 정확한 안면인식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차세대 모바일AP '엑시노스9 (9810)' 제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초고속 모뎀에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연산 기능을 강화한 고성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양산에 나선다. 이번에 생산되는 모바일 AP는 올 상반기 공개되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에 탑재돼 두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세대 10나노 핀펫 공정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모바일 AP '엑시노스9(9810)'을 양산한다고 4일 밝혔다.

AP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엑시노스9에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중앙처리장치(CPU) 코어와 업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모뎀을 탑재했다.

소프트웨어는 최대 2.9GHz로 작동하는 고성능 빅코어 4개와 전력효율을 높인 리틀코어 4개가 결합된 옥타 코어 구조로 최적화돼, 각 코어가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엑시노스9은 신경망을 기반으로

딥러닝 기능과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류한다. 또 3차원(3D) 스캐닝이 정확한 안면인식을 지원하고 별도의 보안전용 프로세스 유닛으로 안면, 홍채, 지문정보 등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엑시노스9810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Cat.18 6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 기반 모뎀이 탑재됐다.

업계 최고 수준인 1.2Gbps의 다운로드 속도와 200Mbps의 업로드 속도를 구현한다. 1.2Gbps는 1.5GB 용량의 HD급 화질의 영화 한편을 10초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속도다.

CA는 '주파수 집성' 또는 '주파수 묶음'이란 뜻의 이동통신 기술로, 흩어져 있는 여러개의 주파수를 하나의 광대역 주파수처럼 묶어 데이터 전송속도와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다. 6CA는 6개의 주파수를 묶는다는 의미다.

이 밖에 4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사용해 속도를 높인 '4x4 MIMO' 다중안테나 기술과 와이파이, 블루투스4와 같은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eLAA 기술 등도 적용했다.

엑시노스9810은 저조도 이미지 촬영과 4K UHD 영상 녹화 등 멀티미디어 기능도 강화됐다. 전력효율이 높은 지능형 이미지 처리 방식을 통해 실시간 아웃포커스 기능과 야간 촬영 시에도 고품질의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20fps의 4K UHD 비디오 녹화와 재생이 가능하고, 10bit의 HEVC(고효율 동영상 압축 표준·H.265)와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 동영상 코덱인 VP9을 지원해 표현 가능한 색상의 수가 1600만 개에서 10억 개 이상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마케팅팀 장 허국 상무는 "엑시노스9810은 독자 기술로 개발된 CPU와 최고 속도의 모뎀 기술, 지능형 이미지 처리 기술 등 삼성전자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며 "혁신적인 성능과 풍부한 기능 지원을 통해 차세대 스마트폰, 컴퓨팅 기기, 오토모티브 등 AI 시대에 최적화된 스마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엑시노스9810은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임베디드 기술 제품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8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글로벌 고객들에게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삼성전자, '버라이즌'에 5G 통신장비 공급

가정용 단말기·네트워크 설계 등

삼성전자는 4일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과 5G 기술을 활용한 고정형 무선 액세스(FWA) 서비스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버라이즌 자체 통신규격인 5GTF(5G Technology Forum) 기반의 통신장비, 가정용 단말기(CPE), 네트워크 설계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버라이즌은 2018년 하반기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 세계 첫 번째 상용 서비스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전역 11개 도시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중 첫 상용 서비스 예정 도시인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7개 도시에 통신장비와 단말기를 공급해왔다.

버라이즌은 향후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서비스가 미국 전역 3000만 가구로 확대되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서비스는 초고속 이동통신서비스를 각 가정까지 무선

으로 직접 제공하는 기술로 광케이블 매설 공사나 이를 위한 인허가 절차 등이 필요 없다. 수개월까지 걸리던 서비스 준비 시간을 몇 시간으로 단축시키면서도 기가비트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주로 주택에 거주해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전체의 10% 내외 수준으로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서비스를 통한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많으며, 해당 분야에서 전 세계 기술과 시장 선도를 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모델이 SK텔레콤의 '스마트홈 드림하우스' 사업에 적용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 SKT, 장애인 생활공간 거주편의 개선

SK텔레콤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거주 편의를 개선한 '스마트홈 드림하우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홈 드림하우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따뜻한동행'이 선정한 10곳에 연내 구축된다.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한 스위치·가스차단기·인공지능 스피커 등 생활 편의 IoT 연동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취지에 동감한 린나이(보일러), 하츠(레인지 후드)도 가전기기를 함께 제공한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침대에 누워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가스차단기를 열고 잠그는 단순한 일상생활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가전기기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한 스위치·가스차단기·인공지능 스피커 등 생활 편의 IoT 연동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취지에 동감한 린나이(보일러), 하츠(레인지 후드)도 가전기기를 함께 제공한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침대에 누워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가스차단기를 열고 잠그는 단순한 일상생활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가전기기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조원태, 조종사 노조 만나 '노사협력' 당부

(대한항공 사장)

### 새해 현장중심 소통행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올해 처음으로 조종사노조 관계자를 만나는 등 내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새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 사장은 4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김성기 조종사노조 신입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들과 만나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최대영 일반노조 신입위원장과 의 상견례 이후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와의 두 번째 만남이다. 올해 조 조양호 회장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현장경영'을 강조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면서 조 사장 역시 임직원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특히 조 사장은 연초 안전운항을 위해 전담하는 직원들을 찾아 간식을 전달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내 정비 격납고와 종합통제센터, 램프지역 및 화물현장, 승무원 브리핑실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어 2일에는 부산에 위치한 테크센터 시무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방통위, KBS 보궐이사 김상근 목사 추천

한국방송공사(KBS)의 보궐이사에 김상근(78) 목사가 추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해임된 강규형 전 한국방송 이사의 자리에 김 목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 이사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김 목사가 보궐이사에 오르게 된다. 보궐이사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김 목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기독교계 원로다.

현재 KBS 이사진 구성은 야권이 추천했던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여야 5대 5대다. 김 목사가 임명되면 11명의 이사 가운데 여권 추천이사가 6명, 야권 추천이사가 5명이 돼 여야 구조가 뒤바뀐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KBS 보궐이사 추천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정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상근 목사

한편, 이날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의 해임안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김나인 기자

## 창립 60주년 'KCC' 기념 엠블럼 공개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KCC가 60주년 기념 엠블럼을 4일 공개했다.

이번 기념 엠블럼은 동양에서 한 생명의 완성주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갑자(甲子) 숫자 60에 무한대 기호(∞)를 결합한 형태다. 대한민국 근, 현대사 60년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여 글로벌 일류기업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사내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념 엠블럼은 디자인팀 김혜운 대리의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했다. KCC CI인 블루 컬러와 레드 컬러를 사용해 기업 브랜드와의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아이디어였다.

KCC는 기념 엠블럼을 올 한 해 동안 TV 및 신문광고, 홈페이지, 카탈로그, 명함, 각종 판촉물 등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60주년 의미를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몽규 KCC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와 해외시장 개척을 강조한 바 있다. 빅데이터 확보와 자동화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공장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진출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등에 신규 생산 법인을 설립해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KCC는 지난해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선박용 도료 점유율 2.5%를 기록했다.

/임현재 기자 ih@